

# 여우 성우 리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기획특집

기획특집 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  
진지혜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기획특집 ② 다문화 포용적 공존 방안모색  
이대경 |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법인 대표



# BUSAN GENDER EQUALITY & FAMIL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여성우리 2026. 04. Vol. 75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통권 제75호 비매품

**발행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Tel. 051)330-3400

Fax. 051)363-3759

<http://www.bgli.re.kr>

**발행인** 박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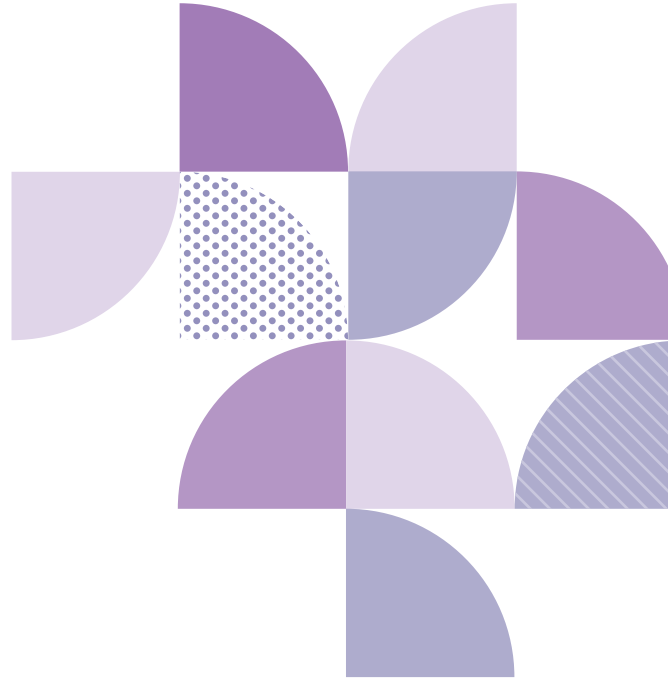
**편집위원** 배정애, 양혜경, 유순희, 이국환, 조경미, 한혜림

**편집자** 김민정, 서유태

**디자인/인쇄** MEMPHIS Tel. 051)248-7262

본 정책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CONTENTS



## 여우단상

- 04 부산 외국인주민 현황  
정명주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 기획특집

- 06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  
진지혜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 08 다문화 포용적 공존 방안모색  
이대경 /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법인 대표

## 인터뷰

- 10 부산,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박성국 / 부산광역시청 인구정책담당관 주무관

## 현장목소리

- 14 부산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몽골 출신 귀화 청년의 이야기  
박영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국인 객원 해설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6 결혼이민자 이야기  
벤투잘안젤리카 /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 여우문화리뷰

- 18 공존하는 삶, 홈(Home), 하우스(House) 그리고 터미널  
정가은 / 영화 비평가

## 특집 \_ Q&A

- 20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 Q&A

## 부산의 herstory

- 22 흙으로 찰나의 부산을 빚어가다  
조서연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 News

- 26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활동소식

여우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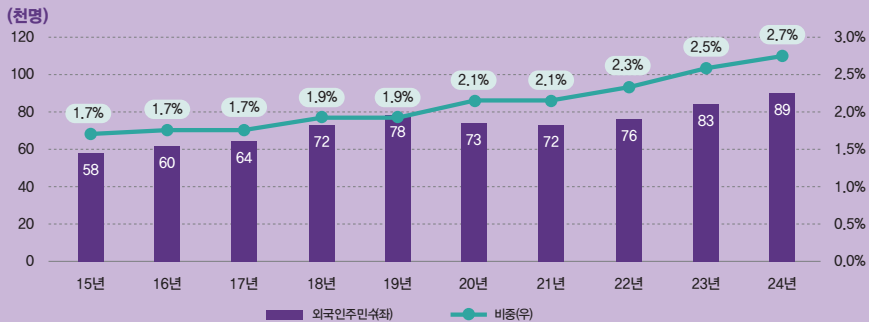
# 부산 외국인주민 현황

정명주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부산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그 역사성에 기반한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 근대 무역항으로서 당시 외래문화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존의 조선인의 공간인 부산진과 일본인 거류지인 초량왜관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융합되는 다문화적 경험을 일찌감치 겪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이면서 전국에서 피란민 인구가 모여들어 밀집하면서 외래인,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라는 독특한 도시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던 시기 부산은 신발 등 제조업의 중심이자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자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도시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제 부산은 주요 도시 기능이 고도로 밀집된 거대도시로서 중심 도시의 경계를 넘어 주변부와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 등이 밀접하게 연결된 메트로폴리탄 광역체계로서 최근 계획 중인 부산을 중심으로 주변 거점도시까지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전략의 중심 핵심 도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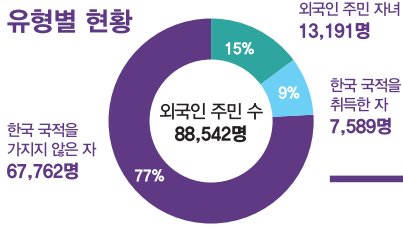
이런 도시 부산도 최근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방이 겪는 고령화, 저출생의 문제에서 빚겨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의 양적,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찌감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을 적극 권장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외국인의 유입에 주목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본격화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정부 수립 이후 대외 개방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1990년대 접어들면서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고, 그 숫자가 100만을 넘어선 때가 2007년이다.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요인도 다양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를 '다문화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책적 대응을 서둘렀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유출등의 문제를 겪는 가운데 외국인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5년 현재 약 9만 명의 등록 외국인인과 더불어 360만 명이 넘는 단기체류외국인(관광)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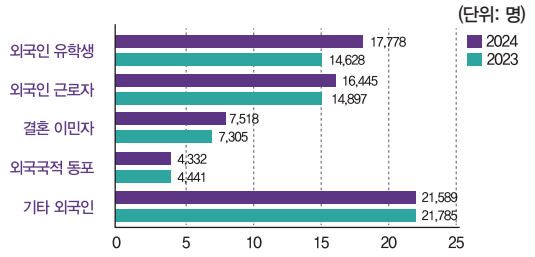


외국인주민의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30대 연령층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 출생률이 한국인 출생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인과는 달리 외국인 자녀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 현황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단위: 명)

구분	총인구	외국인 주민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2015년	3,448,737	58,080	16,424	6,527	6,163	3,688	11,268	4,853	9,157
2024년	3,257,256	88,542	16,445	7,513	17,778	4,432	21,586	7,589	13,191

202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외국인 이주자 유입에 부산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개방적 도시로서의 축적된 역사성을 토대로 외국인 유입을 도시 성장 동력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즉 단순근로인력 위주가 아닌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머무는 도시’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미 부산의 도약은 시작되었고 이와 맞물려 부산을 외국인 글로벌 창업과 스타트업의 전초기지화 해야 한다. 디지털노마드 시대를 맞아 이미 그리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은 시행 중인 워케이션비자 등을 광역비자사업 같은 지방이민정책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가 어우러져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부산에서 디지털노마드들이 상호교류하고 다양한 경제,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관광인구 또한 부산에 장기체류할 잠재적 이주자에게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산으로의 이주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광정책 또한 이주자정책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들어온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포용적 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것이다. 부산시 내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의 기능이 부산시 내 외국인 유형과 규모,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중복은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없이 상담 및 정보 공유, 교육, 문화 활동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넘쳐나는 도시의 품격을 고려하여 보다 고품질의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외국인 학교, 다국어 의료서비스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부산시민과 외국인이 한국문화, 나아가 지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해 공감하는 상호공유형 문화행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은 무궁무진하다. 해안도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는 옛 조선소 혹은 선박 정비소 등을 개조한 대형 카페 등을 활용하여 상시 문화전시나 다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산에 있는 빈집 또한 글로벌 인재와 스타트업 유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음은 이주자와의 연대 의식의 공유이다. 부산은 일찍부터 배타적이고 패쇄적인 문화가 아닌 개방과 포용의 DNA가 자리잡게 된 배경이 있다. 국적이 같은 국민, 시민의 범주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동질감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혈연, 지연이 아닌 지역 사회에의 기여와 공헌, 활동을 기준으로 공존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의식이 저변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바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기획특집 ①

# 외국인 주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문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태풍이나 산불 경보를 알리는 메시지는 생존과 직결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경고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 '당연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에게는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자체가 낯설 수 있다.

몽골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국으로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 경보를 접하는 환경과는 기후적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양성 재해 경험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 재난문자는 단순한 안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이주민들은 한국 거주 초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기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즉,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한편, 최근 서울의 한 관광지 인근에서 “○○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sup>1</sup>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공간에 혐오 문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sup>2</sup>에 따르면, 한 부모는 아이가 “간첩이 뭐야”라고 묻자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는 외국인을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판단과 규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 존중'과 '포용'이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경험의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적응'인 경우가 많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기준이 보편적이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 가려는 태도이다.

진정한 포용은 상대를 우리와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한 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언어가 서툴더라도 그 언어를 존중하고, 문화가 낯설더라도 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sup>1</sup> 특정 국기를 지칭하는 표현은 불필요한 편견과 낙인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음  
<sup>2</sup> 아시아 경제, 2026.02.10, 일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19746?sid=102>



# 우리의 자세

진지혜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이와 함께 우리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소통을 고민해야 한다. 재난문자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sup>3</sup>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맥락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기후 환경과 생활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정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 그 의미가 실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맞닿는다.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방식은 종종 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나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 문화를 판단하는 자문화중심주의<sup>4</sup>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문화를 더 낫다고 여기며 따르려는 문화 상대주의<sup>5</sup>이다. 전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게 만들고, 후자는 자기 문화에 대한 왜곡된 열등감을 낳고, 스스로 낮추어 보게 만드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균형 잡힌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는 각기 다른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모든 차이를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다르다'는 사실과 '옳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

결국 외국인 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쉽게 혐오로 이어진다. 반대로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신뢰와 공존의 기반이 된다.

낮섬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며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해의 계기로 삼아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외국인 주민을 향한 시선이 혐오가 아닌 존중으로, 맹목적 동경이나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균형 잡힌 이해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3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용 재난·안전 앱인 'Emergency Ready App'를 통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로 재난문자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8.25. 일자 -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 외국인 안전 강화한다

4 네이버 지식백과-자기 문화의 우월성에 빠져,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557&cid=47335&categoryId=47335>

5 네이버 지식백과-주체성이 없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섬기는 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260&cid=42044&categoryId=42044>

기획특집 ②

# 다문화 포용적 공존 방안모색

이대경 /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법인 대표

## 1. 3개 국어는 학교의 트렌드이자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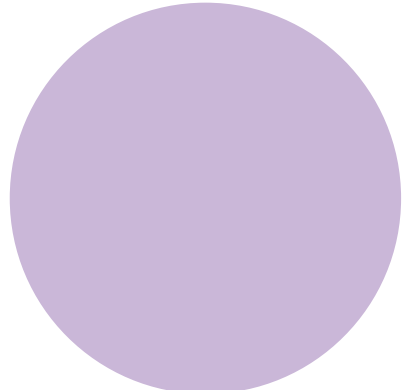
부산다문화국제학교의 다문화의 생태계는 국제무대이다.  
KOREAN 비빔밥이 연상되는 22개국 나라의 언어가 작은 지구촌이다.  
세계 어디라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미래의 리더로 기증해본다.  
다국적 인재들은 이제 국가를 넘어 인류의 자산이다.

## 2. 자기변화의 능력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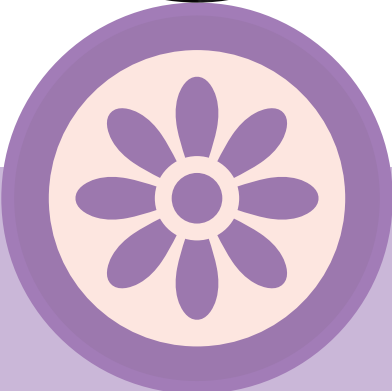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공동 주체자가 되어 지식과 문화와 언어를  
사회적 기업처럼 성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여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적 지식을 배워 차세대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한다.

## 3. 키보다 마음이 먼저 커버린 아이들

아이의 첫 한국 학교는 본격적인 한국 교육의 시작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받으며 또 다른 문화와 교육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한국 사회 기준의 비교 속에서 내 가치는 흔들리고 자아는 작아진다.  
개성적 자아를 넘어서 학교에서 생존법을 배우고 정서 안정을 찾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년기(또는 소년기) 시절에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을 오게된 아이들은 다문화 중  
도입국 외국인, 재외 동포, 탈북, 난민 등이다. 다문화학생들도 일반학  
생들과 다름없이 시기술만능주의 함정에 빠져서 예외는 아니다. 개인화된  
공간에 디지털 세계의 감금자로서 기계의 조작자로 전략된 느낌이다.



## 4. 다문화의 포용적 공존 방안 모색



### ① 다국적 학생들에게 규칙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타성적 습관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안전불감증이란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학칙 준수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고 문화가 다른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들에게 부모의 언어와 문화는 2개의 백 그라운드로 작용해 2배나 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보다 나은 미래를 가르친다.

### ② 학교는 한국문화의 이해와 교육의 원칙을 가르친다.

교실 환경은 다국적 나라의 문화적인 환경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어 수업에 서로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 / 다양한 얼굴과 생김새 / 수업 방식 / 토론 / 프로젝트 / K-문화 등 하나도 익숙한 것이 없다. 이곳에서 적응 수단은 한국어가 생존전략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무조건 한국화만 시키려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동시에 보이스트레이닝을 통한 한국어 실력을 진단하고 입학 상담 시 국가별 학생 참여가 허용된다. 빠른 적응을 위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적 수준을 끌어올린다.

### ③ 학생들에게 한국 학교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각종 언어능력 발휘 대화와 학교생활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공간은 건축가가 만들지만 그 가치는 사용하는 학생이므로 공간의 원칙론도 가르친다. 다국적 학생들에게 고급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품격도 가르친다.

### ④ 글로벌 언어 세계에 한국어 위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배적으로 되는 것이 역사적 트렌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도 학생수가 많은 나라의 학생이 학교의 문화를 주도하여 트렌드를 형성해 간다.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다양성을 가진 다문화는 시대의 파트너십으로 한국어가 시대의 트렌드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역할과 시 위상과 변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5. 시대적 요청 방안

다문화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잘하고 학습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융화가 되어 동화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공존하면서 서로 다르게 경쟁하고 있다. 다문화는 경쟁을 넘어서 차별화로 공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대로 요청된다.

인터뷰

# 부산,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박성국 / 부산광역시청 인구정책담당관 주무관

## Q 2026년 2월 기준, 부산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인구통계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자료와 「통계법」에 근거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행정안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자료는 체류자격 조사 목적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거소신고한 사람 수의 합계를 매월 게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부산에 67,914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외국인주민 거주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11월, 전년도 11월 기준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11월 기준 자료를 기초로 외국인주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와 달리,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는 귀화자 등 한국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주민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에는 총 88,542명의 외국인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국적 미취득자 기준으로는 67,762명이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이 17천 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16천 여 명), 결혼이민자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구군별로는 남구, 사상구, 강서구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Q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들의 정책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우리 시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은 국적 미취득자 67,762명 중 체류기간 5년 미만인 40,208명으로 59.3%, 5년 이상이 27,553명으로 40.7%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전반적인 수치로는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별로 한국어 교육이 라든지, 종합 상담, 통번역 지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해보면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분야별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부산에 처음 온 외국인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언어와 생활적응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외국인 지원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생활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우리나라 생활법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외국인주민이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 2월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주민 통합 플랫폼 웹사이트인 마이부산(<https://mybusan.kr>)을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의 라이프인부산 웹사이트를 외국인주민 맞춤형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조화하여, 부산소개, 생활가이드, 비자, 교육, 취업까지 부산에 정착하는 외국인을 위해 모든 정보를 57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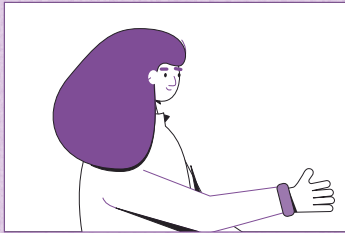
또한 외국인 통합콜센터(1600-0051)는 우리 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3곳인 부산글로벌 도시재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기관별 역할을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도시재단은 유학생 및 주민지원, 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근로자지원센터는 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전화번호가 다르고, 지원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어,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연락하기 쉽지 않아, 이에, 작년부터 외국인 통합콜센터(1600-005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 음성에 따라 총 8개 국어의 언어선택 후 관련 분야를 선택하면 그 기관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

**Q**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법률, 의료, 자녀돌봄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합콜센터를 활용해 3곳의 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들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대상으로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를 운영 중으로, 관련 생활, 의료, 법률 관련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 주민대상으로도 재단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돌봄 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각 구·군에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 관련 법률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Q** 부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나요?

**Q**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외국인주민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과 함께 도약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형 정주기반 비자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부품 등 신산업 분야 외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형 비자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35명에 대한 부산시 추천서를 발급해서,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기초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지원기관 3곳의 정책을 소개하자면, 우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일반생활 상담 및 노무,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 상담 등 종합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강좌, 마이부산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커넥터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축제 등 내외국인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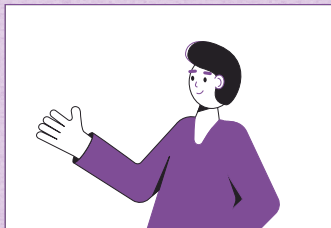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종합상담, 통번역, 이동 및 그룹상담,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질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의료비 및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세계인의 날과 연계하여 아시아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함께Green부산 행사를 통해 분기 1회 환경개선활동,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내외국인간의 사회통합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상담지원, 한국어교육 등은 타 기관과 비슷하지만, 보다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은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에 거점교육장을 두고, 매주 일요일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 맞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게차 교육도 신규로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도 임금체불, 출입국 체류 등 노동관련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외국인주민정책을 종합적이고 검토하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현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꾸려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위해, 많은 지원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들의 최종 목표는 내외국인 간 상대를 차별없이 받아들이고, 다름을 존중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유관기관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살기 좋은 우리 부산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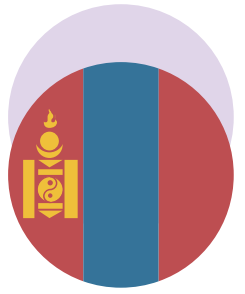


현장목소리 ①

# 부산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몽골 출신 귀화 청년의 이야기

박영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국인 객원 해설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태어나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22년에 대한민국에 귀화한 박영광(몽골 이름: 채랜도르즈 엘흐비아르)입니다. 저의 16년 생활 가운데 부산은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장소이고, 저의 한국 생활의 시작이자 여전히 마음의 주소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저보다 앞서 몽골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셨던 어머니가 부산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오신 뒤에 2010년에 동생이랑 같이 입국하여 어느새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부산)에 왔을 당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표현밖에 몰랐습니다. 이 표현들을 저는 몽골에서 매일 봤던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몽골에서 다녔던 주몽골러시아대사관학교에서 저의 반에 주재원 분의 자녀가 다녀 그 친구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가장 가까워진 계기는 2009년 가을, 친구랑 원래 몽골 영화를 보려고 사진에 예매를 했는데 영화관 현장에 도착하니 시스템 오류로

대체 영화인 ‘해운대’를 보고 2010년에 처음 오자마자 영화의 촬영지에서 처음으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한국어 어학연수를 받고, 부산에서 첫 초등학교를 편입하여 한국에서 첫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저에게 새로웠던 것은 한국에서 중등학교 시절 성별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정 받은 중학교가 남중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여 자퇴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순간들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의 곁에서 함께해 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부산의 한국인 지인들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저의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지와 도움으로 첫 몽골 출신 졸업생의 영광의 역사를 넣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로 상경하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GKS(Global Korean Studies) 한국학을 학사를 졸업하여 자대 석사에 진학하여 2024년

8월에 졸업했고, 그 사이에 2022년에 귀화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 이후 서울로 상경 하니까 부산과 연이 끊겨졌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에 가족들이 부산에 계셨고, 저는 여름/겨울 방학 때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산에 사는 저처럼 중도입국/이주배경 청소년 및 이주민들과 만나고, 우리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당사자들과 만남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저와 마주하는 분들도 저와 나눔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 생활의 선배로서 알려주는 정보들이 본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내 내국인들과 만났을 때 저에 대한 첫 인상은 몽골 출신이 아닌 부산 사투리가 나는 데 부산에서 왔느냐는 햇갈릴 정도로 부산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입니다.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6년에 약 2만 6천 명, 2015년에 약 4만 6천 명, 2024년 기준 약 5만 명 등 수가 증가<sup>1</sup>하고, 게다가 2025년에는 우리 부산 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해<sup>2</sup>, 부산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여행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부산행(Train to Busan)’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이 도시는, 이제 실제로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행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등으로 알려진 우리 부산을 위한 애정이 늘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 속에 과거의 저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떠난 뒤에도 이 도시에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그리고 저처럼 한때 외국인이었다가 시민이 된 사람들이 남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F-2-R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sup>3</sup>. 유학생으로 시작해 졸업하여 취업을 하고, 나아가 이 도시의 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16년 전에 비해 길이 분명히 생기고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길을 먼저 걸어 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는 이주민의 기억과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떠올립니다. “비자 제도가 사전에 예고없이 또 바뀌면 어찌지?”, “한국어 및 TOPIK 점수가 조금만 낮으면 기회에서 바로 밀려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은 지금도 많은 친구들의 일상 대화 끝에 따라붙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 활력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과 정착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숫자와 제도만으로는 진짜 공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그리고 귀화한 시민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 및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과 지역사회 논의 속에 함께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도시는 우리 모두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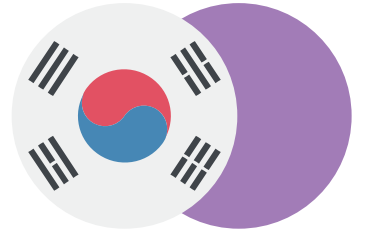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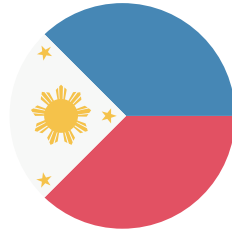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이 부산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통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 주민의 이야기가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언론, 행정의 언어 속에 나타날 때, “함께 살아가는 부산”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부산은, 몽골에서 온 청년이 한국인이 되어 가는 과정의 출발지였던 도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혹시 길에서, 버스에서, 동네 가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주민을 만나게 된다면,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한 마디를 더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부산에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도시를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 주는 시작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외국인 통계」,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depart/welfareforeign>.  
 2 「Busan surpasses 3 million foreign tourists for the first time」, Korea Stripes, 2025. 12. 2., <https://korea.stripes.com/travel/busan-foreign-tourists.html>.  
 3 Margareth Theresia, 「New visas to help Busan fight depopulation of city districts」, Korea.net, 2025. 3. 19.,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68343>.

현장목소리 ②

# 결혼이민자 이야기



벤투잘안젤리카 /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에서 온 안젤리카입니다. 2017년 필리핀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한국 남자와 2018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고 현재,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배우 비(정지훈)가 나온 드라마 ‘풀하우스’ 드라마를 보고 막연하게 비(정지훈)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남편은 “한국은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야, 내 몸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 안 입어도 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여름옷을 입고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고,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나뭇잎 냄새와 달은 냄새가 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고 왔지만 부산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쓰는 말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처음 부산의 3개월 생활은 혼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남편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다른 외국 인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센터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바빠서 저를 데려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버스를 타는 것도 고함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버스를 타는지 물어봤더니 교통카드나 현금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는데, 문제는 어떻게 내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인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버스를 세워주세요”라고 말하면 버스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해 “기사님, 여기서 내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나를 쳐다보더니 “예? 여기서 내리시겠어요? 그럼 빨간 벨을 누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벨? 제 알고 있는 벨은 딸랑딸랑 흔드는 벨입니다. 그래서 그 벨 계속 찾아도 없어서, “기사님, 벨 없어요”라고 얘기했더니 “벨 있잖아, 그 빨간색 버튼” 그때 처음으로 버스를 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은 여름밖에 없는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큰 추위를 느껴 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 봐, 따뜻한 옷 입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날 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서, 남편에게 “괜찮아. 금방 니을 거야”하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감기는 아주 강했습니다. 아기처럼 계속 콧물이 나고 열도 많이 나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가 낫자, 남편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 저는 주사를 맞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 추운 겨울과 벚꽃이 피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국 여름은 엄청 더워 물 많이 마시고 점심시간부터 오후까지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처음이었지만, 더운 날씨는 익숙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과 다르게 습도가 높아서 너무 더웠습니다. 남편 말을 듣지 않은 저는 또 아팠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는 삼계탕이 보약이야. 삼계탕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무 날이나 삼계탕을 먹는데 왜 약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나니, 금방 몸이 좋아졌습니다. 남편 말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와 계속 바뀌는 계절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이 2019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시작되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집에만 있으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센터에서 한국 요리 수업도 듣고, 부모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방법을 배웠는데, 제가 살던 필리핀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밤에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목욕을 시키지 않는데 한국은 자기 전에 목욕을 시켜야 하고, 필리핀에서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덕분에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딸 수 있었는데, 운전면허학원에서 부산 사투리 때문에 어렵고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발 떼”라고 하면 빨대가 떠올라서 운전하면서 빨대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여기 빨대는 없어요”라고 말했더니, 강사님이 웃으면서 “발이에요, 발을 치우세요”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언어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봄에만 벚꽃을 볼 수 있고 우리 집 근처에 벚꽃길이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에는 벚꽃이 없어서 벚꽃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산진구의 아름다운 곳들도 많이 방문했고, 겨울에는 부산진구청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께서 정성껏 즐겁게 가르쳐 주시고, 김치를 담그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마치 우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산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부산시민공원입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아이들 공원인 줄만 알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 딸도 시민공원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벌써 제가 부산에 산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딸이 올해 초등학교생이 되었고, 저는 작년부터 강사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낯설어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에 살면서 많은 곳을 구경하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우문화리뷰

# 공존하는 삶: 홈(Home), 하우스(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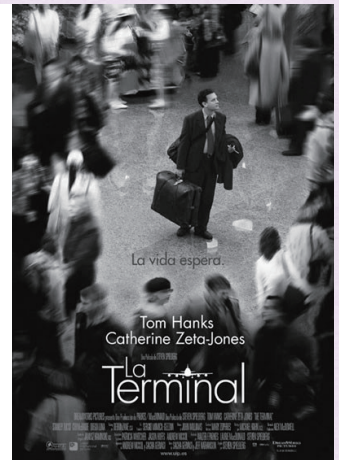
## 그리고 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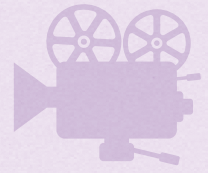
정가는 / 영화비평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터미널>(2004)은 고향을 잃은 한 남자가 잠시 공항을 집(House)으로 삼다가, 고향을 되찾고 '집(Home)'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이다. 영어로 홈 Home과 하우스House는 둘 다 집을 뜻한다. 하우스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한다면, 홈은 가정, 안식처, 소속감 같은 정서적 의미가 강하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하우스를 거쳐 간다. 홈과 하우스가 동일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다. 홈을 떠나 타지에서 하우스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건 현재 사회에서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동유럽에 있는 가공의 국가인 크로코지아의 국민, 빅터 나보르스키가 머물게 된 집은 좀 특별하다. 그의 집은 공항이다. 그가 뉴욕으로 오는 동안 그의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국경이 폐쇄되는 바람에 뉴욕 JFK 국제 공항에 9개월 동안 갇히게 된다. 그의 입국 비자와 여권은 종잇조각이 되었다. 내전이 종료될 때까지 그는 무국적자이며, 공항을 통과하기엔 부적격자이다.

영화는 1988년에서 2006까지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머문 이란 출신의 무국적자 메흐란 카리미 나세리의 실화를 모티브로 삼는다. 고국에서 추방당한 나세리는 영국으로 가던 도중 경유지인 프랑스에서 난민 서류를 분실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공항에서 생활한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개인은 무력한 유령처럼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채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빅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영어를 못하고, 달려도 갖고 있지 않은 그가 공항 라운지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공사 중인 67번 게이트에서 의자를 놓아 잠을 청하고, 캐리어 이동용 카트를 정리해 받은 돈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멀끔한 모습으로 터미널에 등장해 언젠가 합법적으로 뉴욕에 갈 수 있기를 기다린다. 빅터는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





# MOVIE

에서 거대한 기성 제도가 휘두르는 폭력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처지이다. 그는 편법을 사용해 공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에도 “I wait(난 기다려요.)”라며 거절한다. 그곳에-있음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나아가 빅터는 공항 직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비장소인 공항을 집(Home)으로 만들어간다. 거절 될 걸 알면서도 빅터는 매일 입국 심사장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한다. 평소 입국 심사관을 짝사랑해 온 식당 직원 엔리케가 빅터에게 음식을 건네며 그녀의 정보를 알아 와 달라고 부탁한다. 사랑에 눈 먼 그 덕분에 빅터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청소부 노인 굽타, 수화물 직원 멀로이와 함께 게임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또한 승무원 아멜리아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에게 공항은 더 이상 이동과 소비 중심의 공간인 비장소가 아니다. 행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추억을 쌓으며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한국에도 빅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 콩고에서 온 루렌도씨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88일 동안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에 머물러야 했다. 난민뿐 아니라, 유학, 취업, 결혼 등 사회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주민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안정적 고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특화 체류 비자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온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빅터와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빅터가 공항 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한 정서적 공동체는 내부의 결속을 더 강화하며 집을 잃은 빅터에게 또 다른 집(Home)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흠도 하우스도 영원하지 않다. 경제적인 안정과 부동산 정책이 있다고 해서 하우스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인간도 공간도 유한하기에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또한 언젠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의 거처는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턱이 낮은 터미널에 가깝다. 잠시 머물 수도, 갈 곳 없이 방황할 수도, 오랜 시간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각기 가야 할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것이다.

공항 현장 관리자인 프랭크 디슨은 빅터가 뉴욕에 가는 것을 막고자, 친구들을 해고하거나 추방하겠다 협박한다. 이에 굽타는 빅터가 뉴욕으로 갈 수 있도록, 맨몸으로 크로코지아 행 비행기를 막아서며 비행기를 지연시킨다. 추방당하길 선택한 자신에게 빅터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 “I’m going home”(난 집에 갈 거야)이라 외친다. 굽타의 희생으로 뉴욕에 온 목적을 이루게 된 빅터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I’m going home”이라 답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얼굴엔 후련함과 뿌듯함이 서린다. 이제 터미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빅터는 터미널에서 거기-있음으로 저항하며 경계의 틈을 만들어내었고, 그의 선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빅터가 보여준 선의에 사람들은 보답하고자 한다. 그가 뉴욕으로 향하자, 온갖 선물과 축하가 쏟아지고 그의 공항 생활을 지켜본 모두가 그를 기쁘게 배웅한다. 이는 어쩌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빅터가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빅터에게 그러했듯,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건네는 손을 내미는 것. 공존하는 이들과 갈등하고 혐오하며 적대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것. 나아가 우리 주변의 빅터를 살피고 관심과 사랑을 건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작고 사소한 마음들이 쌓여 이 세계가 조금은 더 다정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

#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Q.** 체류 자격(비자)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서 체류지 변경, 근무처 변경 등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사를 한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외국인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은 '외국인등록증은 가진 외국인',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이며, 단기체류(90일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이사 후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신고 불가).  
이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는 체류 자격 및 비자 관리와도 연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가 된다.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부산의 herstory

언어를 넘어 삶으로 해석하는 도자 형상·예술가  
공민지 도예가

# 흙으로 찰나의 부산을 빛어가다

조서연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서로의 언어와 생김새가 달라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같이 체험하는 예술에는 무언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특히 도자 공예라면 공통 요소가 다분하다.

어디에서든 익숙한 흙, 물, 공기, 불을 이용하면서

각자 몸담은 장소의 의미가 붙들린 형상으로 빛어지고 구워진다.



올 초에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고정동으로 터를 옮긴 공민지 도예가의 공방에 들어섰다. 벽면 선반에는 독특한 모양의 조각이 반복·연결된 도자기 용품과 전시 작품이 모습을 보였다. 필자가 자리에 앉자, 그는 나무 질감의 도자기 잔에 커피를 따라주었다.

# HERSTORY



● **감천문화마을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 분들을 만나셨다고요.**

입주 작가로 선정되어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관광오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는 카자흐스탄 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전시할 때 제 작품을 보고 시간 분이었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다른 것들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소통되는 게 신기합니다. 뉴욕, 대만 등지에도 제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도자 공예를 하지만 여러 세계로 뻗어가는 게 좋습니다.

● **그전 일본 타네가시마 섬에서의 주민들 속 작업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부산에서의 감천문화마을 도시 재생 모델이 전파된 외국 사례였어요. 예술 교류로 일본에 가서 그곳 주민들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현지인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환이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예술인들이 모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도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존중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이 공동체와의 공유를 통해 예술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herstory



● 도예가님 특유의 ‘유닛’을 구상하고 반복·나열·연결하는 작업이 재밌어요.

도자기 기법은 많습니다. 저는 흙을 포함해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들었던 말이, 작업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이었어요. 가까이서 보고는 ‘이거 도자기 맞아요?’ 하십니다. 도자기는 식기로만 잘 알고 있는데, 조형뿐 아니라 평면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매체가 붙으면서 새로이 표현됩니다. 수많은 형태의 ‘도자 유닛’을 만들어 부착하고 천과도 접목한 작품도 있어요. ‘사슬’을 연결하며 제 화두인 ‘찰나의 소중함’을 이어갑니다.

● 부산의 산과 바다, 집들의 형태가 찰나의 형상으로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저를 살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푸근함도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면 바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바다도 있고 산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평소의 순간순간들이 모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꼭 도자 과정 같아요. 제 안의 높고 낮은 파도는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파도’로 표현되었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생활하며 만든 그 시기의 작품들은 아가지기한 계단식 마을 형태를 닮았습니다.

● 지금의 흙을 빚고 불을 지피는 일상을 이어오게 한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예술고와 예술대학을 갔네요. 흙은 도자공예디자인과로 가서 만졌습니다. 매일 작업실에 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자 예술은 흙의 시간과 저의 변화된 시간을 담아내는 것에 있어요. ‘흐르는 빛, 머무는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업실에 있을 때 네다섯 시에 햇살이 아주 예쁘게 들어왔지요. 갑자기 작업실 표정이 달라지고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붙잡고 싶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 HERSTORY



● 도자 예술의 꿈을 품은 지역 청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혼자 빛어가는 과정이지만 레지던시나 구 운영 예술 공간을 활용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예술가들과의 접점이 생기고, 바다·골목 축제나 현장 체험을 할 기회도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외국인 청년들, 부산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도자기 체험이나 멘토링 수업을 했어요. 도자 예술에는 변수가 많아요. 저도 꽤나 오래 작업했는데 '완성이 잘 되겠다' 싶으면 다르게 구워져 나오기도 해 마지막까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찰나의 순간을 만들어 가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머그잔으로 향했던 필자의 마음을 안 것일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모양을 한 그것을 기념으로 싸주겠다. 필자의 휘젓는 손을 뒤로 하고 그는 찻잔을 씻으러 들어갔다. 그때 외편방에 있던 거대한 가마를 보았다. 어떤 흙이 어떤 순간을 경험한 누구와 마주쳐 저곳을 통과하게 될까. 같은 흙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무엇이 되어 어디서 만나고 또 어떤 곳에 머물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다.

## 01 2026년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맞춤형 집단코칭』 운영

부산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부산지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3개소(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소속 아이돌보미 437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법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집단코칭을 운영하였다.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 안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돌봄 활동 시 발생하는 부정적 대응 및 아동학대 위험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임에 따라

아동권리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실천하고 현장 대응을 사전에 코칭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였다.

맞춤형 집단코칭의 전체 만족도는 평균 4.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참여 후 업무 이해도가 0.2점 상승하여 집단코칭을 통한 이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맞춤형 집단코칭』은 부산지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청에 의해 연간 진행될 예정이다.



## 02 가족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아기 부모-자녀 관계검진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관계의 예방적 관리 필요성을 바탕으로, 영아기(30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영아기 양육자 - 자녀 관계검진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관계검진은 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근거기반 상담·코칭 모델이다. 기존의 문제 해결 중심 상담을 넘어, 관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성을 유지·강화하는 예방 중심 가족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난해 부부 대상 '결혼검진'에서 활용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영역으로 확대해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가족관계검진 연구콘소시엄(덕성여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남대학교)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관계검진 모델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족상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검진 절차와 해석 방법, 피드백 기법 등을 익히며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계검진 기반 상담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03 한부모가족 위한 1:1 생활코디네이터서비스 운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에서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를 위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코디네이터(한부모 멘토)와 이용자(한부모 멘티)를 1:1로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원, 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코디네이터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소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에는 생활코디네이터의 자세와 역할, 관계 형성 기술, 회복탄력성 등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활동가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소진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월례회를 운영하여 지원 정보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가와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활동가와 이용자 간 일정 조율을 통해 이용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은 기본 5회기(회당 2시간)로 제공되며, 필요시 최대 8회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접수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6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 이용자 모집

한부모 '멘토'와 한부모 '멘티'의 1:1 만남을 통해 맞춤형 정보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b>지원 대상</b>	<b>지원 장소</b>
부산시 거주 한부모 30명 *미성년 자녀 양육	이용자 가정
<b>지원 기간</b>	<b>신청 기간</b>
2026. 3. ~ 12. (5회기, 최대 8회기) *멘토와 일일 조율	2026. 2. ~ 상시모집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 051-580-9002



## 04 「성평등 교육 강사 역량강화 사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위촉

성평등가족부 지정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지난 3월 21(토)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성평등 교육 강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강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별 성인지 교수법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수법 ▲시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강의 설계 ▲문화다양성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교육 설계와 참여 유도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여자 중심의 수업설계를 통해 실제 강의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법에 대한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이수자 중 엄격한 위촉 심사를 거쳐 3월 30일 최종 33명의 성평등 교육 강사를 위촉하였다. 올해 위촉된 강사는 「2026년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사업에 적극 투입되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 양성평등센터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평등한 문화 확산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 05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역량강화교육 운영

성평등가족부 지정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는 지난 3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양일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위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모니터링단의 역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이해, 모니터링 지표 안내, 실전 모니터링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민분과와 청년분과가 함께 참여한 실습 활동을 통해 세대 간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어 진행된 모의 모니터링 활동은 실제 현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로부터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은 지역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위촉된 모니터링단은 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2027년 여성가족정책 연구과제를 제안해주세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7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대상

관심있는 부산 시민 누구나

## 제안 내용

2027년도 연구과제(연구분야: 여성, 가족·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성평등 정책)

## 제안 기간

2026. 4. 13.(월) ~ 6. 5.(금)

## 보상

2027년 과제로 채택된 과제 또는 우수한 제안과제에 대해 상금(동백전) 지급

🥇 최우수 | 10만 원 상당   🥈 우수 | 5만 원 상당   🥉 장려 | 3만 원 상당

※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jZGSx88t8vTZQRZ6>)
2. 본원 홈페이지 <시민소통게시판> 통해 제안
3. 이메일: galahad@bgli.re.kr



온라인  
접수

시민소통  
게시판

## 문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성평등가족연구부  
☎ 051-330-3427

# 부산광역시 |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일상으로!

##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나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마음의 눈'이자, '공감능력'을 의미합니다.

WE Think!

"성인지 감수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능력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평등한가?'라고 질문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성평등 교육 강사 역량강화 사업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운영
- 성평등 문화체험데이
-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포럼 운영
- 청년 세대 공감 소통 네트워크 구성

### 성평등한 조직문화 사업

-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지원
- 민간기업 다양성(DEI) 교육지원

### 지역 안전 지원

- '안전한 일상, 성평등 부산' 콘텐츠 개발

### 지역 특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 성주류화 상설협의체 운영

#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 대상자**  
부산시 및 16개 구·군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기업 및 시민
- **교육방법 및 장소**  
집체 교육
- **교육인원**  
최소 10명 이상
- **교육내용**  
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등 - 2h  
특화과정: 성평등 용어 이해하기 등- 2h  
대상자별 과정(아동 및 노인) - 1h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4월 ~ 11월  
(\*희망 교육 날짜 최소 한달전에 신청)
- **교육비**  
무료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공고일 ~ 10월 선착순마감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참조)
- **신청방법**  
QR접속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51-330-3454

